

## 자반고등어

이혜숙(시인)

칠월이면 생각한다  
화롯불 석쇠 위에 지글지글 소리도 맛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고등어 살 아껴가며 발라  
먹었던 가난한 시절

할머니 생신날 소금 범벅 고등어  
두어 손 사들고 와 소금 향아리 깊숙이  
저장해 두고 먹었던 기억  
온 식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지금은  
그 소리 들을 수 없다

자반고등어에서 자반이란 생선 또는 콩, 미역, 김, 쇠고기 등을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에 조리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반찬이다. 주로 생선을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으로 간이 세계 절여 향아리 깊숙이 저장해두고 오래두고 먹어야 했다.

반찬의 종류도 많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 채소류였지만 어른들 생신이나 제삿날, 그리고 명절날이 아니면 육류는 구경하기 어려웠다. 그렇지 않으면 짜게 절여 조금씩 아껴가며 맛을 보는 정도였다. 삼대가 같이 살던 그 시절 대가족의 많은 식구들이 그리워진다.

그 향아리가 지금처럼 냉장고 있고 또 겨울에도 하우스 재배로 반찬거리를 장만하기 쉬워 소용 가치가 떨어져 구시대 산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글지글 석쇠 위에 자반고등어 구워지는 소리, 온 식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다.

고생스러웠지만 그런 줄 모르고 자랐던 그 시절이 그립게 다가오지만 다시 가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어쩔 수가 없다. 추억의 한 페이지를 색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펼치듯 화자는 소중한 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

##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강 해 련(수필가)

오늘은 우리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날이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는 모임이다. 15명의 그리운 회원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마음이 설렌다. 매달 만나는 회원이지만 못 보면 보고 싶은 꼭 가족 같은 모임이다. 1988년에 시작한 이후 올해가 30년이다. 오늘 선정된 책은 류시화 시인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에세이집이다. 인디언을 주제로 한 책인데 920쪽이니 방대한 분량이다. 인디언의 삶과 영적 잠언, 고난과 슬픔을 쓴 내용이다. 그들의 잠언에 감동하고 시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모임 장소는 작고 조용한 음식점의 독립된 외판방에서 점심 후 독후감을 나눈다. 처음에는 방배성당에서 모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성당 회합 실 사람이 늘어나서 우리 독서회원들이 함께 점심도 나눌 겸 음식점에서 모이기로 했다. 회원들의 나이는 6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모인다. 그들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참 좋다.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이라 아무래도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이지만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 회원 모두가 깊은 신앙생활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스럽다. 자녀를 다 출가시킨 분도 있고 미혼 자녀를 둔 분도 있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책과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책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활의 지혜가 담긴 회원 각자의 삶이 전해져 온다. 살아온 방식만큼 생각과 느낌도 참 다양하다. 연세 드신 회원들의 대화는 우리를 말씀의 향연으로 초대한다. 가장 큰 형님 격의 회원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칭한다.

그 형님의 주옥같은 말씀은 놓치기 싫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하다. 마치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 것 같은 말씀은 우리를 감동에 젖게 한다. 책사랑 모임 회장님은 그야말로 진·선·미를 겸비하신 아름다운 분이고, 인기 만점인 총무님은 정성을 다하는 봉사로 우리를 감동케 한다. 각자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좋은 분들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 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보다 더 좋은 모임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30여 년 동안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녀들이 어린이였는데 지금은 다 장성해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는 노년기로 들어간 것 같다. 가끔 손자 · 손녀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다. 책 사랑 모임 기념으로 언젠가 기념문집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영성 서적으로 신앙심을 많이 키웠다. 앞으로는 책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참된 인간이 되고자 책 사랑 모임도 하고 문학 서적도 읽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읽은 책만 해도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책을 읽는 행위는 내 삶을 무한대로 넓히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다.

또한 진정한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자연과 나 그리고 타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다. 책과 더불어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이다.

매달 새 책을 만나며 마음이 설렌다. 어떤 내용이 나를 즐겁게 해줄까 하고, 이달에 읽은 책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에서 인디언 주장이 들려주는 말이다. ‘그대의 가슴 속에 죽음이 들어올 수 없는 삶을 살라.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그들의 시각을 존중하라. 그리고 그들 역시 그대의 시각을 존중하게 하라. 그대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그대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라. 오래 살되,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목적을 두라. 이 세상을 떠나는 위대한 이별의 순간을 위해 고귀한 죽음의 노래를 준비하라. 낯선 사람일지라도 외딴곳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한두 마디 인사를 나누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도 비굴하게 굴지 마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 햇빛에 감사하라.’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인디언은 위대한 영혼을 간직한 순수한 사람이고 자연보호자, 깊은 지혜를 가진 민족임을 알게 되었다.

책 사랑 모임을 하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서로 우정도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서로 한마음이 되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좋은 만남은 행운이다. 깊은 영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독서모임회원들 덕분에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인생의 깊은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가.

오늘도 독서 모임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몸과 영혼의 양식으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하루였다. 모두 화기에애한 가운데 책과 삶에 대한 유익한 대화를 나누며, 이 모임을 함께 한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산다. 이 소중한 모임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